

기념사

운허 옹하대종사 열반30주년을 맞아 이렇게 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월운 조실스님, 인묵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 석학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허큰스님은 불교경전의 한글시대를 찬란하게 열어주신 역경(譯經)의 화신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진지 어언 1600여년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팔만사천의 법문은 정작 민초들에게는 한자(漢字)라는 벽에 갇혀 제대로 열어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운허큰스님께서는 우리말 우리글로 된 경전이 없어서는 한국불교가 중생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갈 수 없다는 절절한 사명감으로 ‘팔만대장경 한글화’라는 대역사(大役事)에 평생을 다바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녹아들어 천만불자 시대를 열게 된 것도 실은 불교경전의 한글시대를 만들어 주신 운허큰스님의 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석전스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근현대불교 대강백으로서 수많은 후학들을 배출하시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강맥을 이어주신 교학중흥의 업적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금번 학술회의를 통해 스님이 크나큰 원력과 열정을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운허노스님의 대원력을 이어 한글대장경 완역의 대업을
완성하시고,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역경과 교학중흥의 대장정을 걸어가시는 월운큰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학술회회 준비에 많은 시간을 내주신 발표
자와 토론자,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하
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
원드립니다.

불기 2554(2010)년 10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